

강진 전남음악창작소 운영성과 전국 1위 차지

연간 540건 대관 1만5천명 이용 전국 최고 실적
창작소 “음악으로 지역 살리는 문화거점모델 제시”
남도 K-콘텐츠 허브로 도약 기반 마련 ‘가속도’

강진군 전남음악창작소가 운영 실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8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전남음악창작소는 지난해 총 540건의 대관 건수와 이용객수 1만5,000여명을 기록하는 등 2025년 한 해 동안 종합 운영 실적에서 전국 14개 음악창작소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입증했다.

특히 교육, 대관, 이용 활성화 등 핵심 운영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지역 음악생태계와 문화관광, 인재양성을 잇는 복합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전남 권역의 열악한 음악 인프라를 보완하고, 제작-유통-공연-교육이 연속되는 지역 거점형 대중음악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음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반 제작과 공연, 교육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창·제작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창작·녹음·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음악창작소는 남도국립국악원과 도립·시립국악단이 활용하는 국악 레코딩 허브이자, 청소년 음악캠프와 오디오북 제작 등 문화복지 거점으로 서도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산학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다문화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며 문화·관광·복지·교육을 잇는 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전남음악창작소는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문화기반 전략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외부 청소년과 방문객, 예비 창작인력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강진에서의 체류 경험과 체류를 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형성함으로써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생활인구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앞으로 전통문화인 민요와 국악, AI 기술, 청년 뮤지션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남도 K-콘텐츠 허브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뮤지션 성장과 콘텐츠 생산이 지역 축제·관광·관계인구 확대 등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문화복지·다



문화·장애인 접근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음악 창작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전남음악창작소는 2025년 광주-강진 연계 청소년 1박 2일 체류형 캠프를 운영하며 AI 작곡, 국악 합주, 스튜디오 녹음, 진로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는 문화예술 기반의 체류 경험이 관계인구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전남음악창작소의 전국 1위 성과는 단순히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강진이 가진 문화관광 자원과 전남음악창작소의 전문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26인 전국 도·공예가가 빚어낸 월출산 이야기

영암도기박물관, 3/20~4/12일 특별전 <월출, 흙의 해석> 개최

월출산국립공원의 장엄한 풍경이 26인 도·공예가의 손끝에서 현대 감각 도자로 탄생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이 3/20~4/12일 특별전 <월출, 흙의 해석>을 개최한다.

영암의 상징인 월출산을 재구성해 관객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회다. 전국에서 이름 높은 26인의 공예가는 ‘영암FC(Fine Craft Art Club)’의 이름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구성된 아티스트 그룹.

이들은 한국 최초의 고운 유약 그릇 ‘시유도기’ 발생지 영암에서 월출산을 재해석한 작품 60점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월출산의 바위, 능선, 구름, 눈 등 자연 풍경을 흙과 유약, 철화 빛질 등 다양한 기법으로 담아내며, 지역 흙의 질감과 형태를 현대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참여 작가는 고은아, 김동표, 김수민, 김수연, 김정우, 김종훈, 박성규, 박진혁, 신재일, 신현민, 안정은, 은성민, 이문정, 이문현, 이정현, 이태호, 정영유, 정준영, 정



유나, 조아라, 조장현, 지승민, 최소정, 하경아, 홍우경, 스튜디오 포이다.

전시회 기간 부대행사로 박물관에서는 4/3-5일 ‘장작가마 소성 참관’, 오전과 오후 ‘작가와 함께하는 찻자리’가 마련된다. 찻자리는 오전 11시, 오후 2시에 1시간씩 이어지고, 5일은 오전만 운영된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주(光州), 책으로 만나다”

20일부터 동구 인문학당서 ‘책으로 만나는 광주展’

광주 동구는 130년의 광주 역사를 돌아보고 전남과 광주가 ‘전남광주특별시’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을 기념해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동구 인문학당에서 ‘책으로 만나는 광주展(전)’을 연다고 밝혔다.

동구 인문학당은 매년 세 차례 책 주제 전시를 진행하는데, 이번 전시는 기간 12회에 이어 열세 번째 전시다. 전시에서는 광주 관련 도서 1,500여 권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광주는 1896년 나주에 있던 전남관찰부(도청)가 광주로 이전한 이후 호남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해 왔으며, 130년이 지난 이후인 2026년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앞두고 있다.

전시 기간 중 주제 강연도 마련된다.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광주 130년의 얼굴-광주인물열전’에서는 독립서점 ‘소년의 서’ 대표이자 『동구의 인물 1·2』 편집자인 임인자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광



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장재성·장매성 남매, 일제강점기를 치열하게 살아낸 최혜순·최영욱·심덕선·김필레, 평생 광주 사람을 실천한 박선홍,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바친 윤상원 등 광주 정신을 이룬 인물들의 삶을 조명한다.

/김명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민이 직접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출, 연기, 촬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는 주민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 ‘크랭크인 고흥’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흥군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2기 과정은 지난해 1기에서 수강생 18명이 제작한 수준 높은 단편영화 2편을 바탕으로 한층 더 내실 있게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와 연기 교육 회차를 대폭 확대했다.

프로그램은 4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고흥 꿈꾸는예술터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특별 강연 및 소재 발굴 ▲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법 ▲연기 기초 및 심화 교육 ▲팀별 현장 촬영 및 후반

고흥군, 주민이 직접 만드는 단편영화 ‘크랭크인 고흥’ 참여자 모집

“고흥의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 21일부터 참여자 모집

작업(믹싱·편집) ▲단편영화 시사회 등 총 15회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특히 4월 9일 첫 회차에는 드라마 <카지노>와 <과인: 촌뜨기들>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홍기준이 강사로 나선다. 홍기준 배우는 실제 촬영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깊이 있는 연기론을 전수하며 주민들의 예술적 열정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고흥군 거주·거소자 20명이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선발전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고흥 꿈꾸는예술터 홈페이지(ghart.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꿈꾸는예술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권지애 고흥군문화도시센터장은 “최근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화제가 되듯 우리 고흥에도 영화 같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며 “주민들의 시선으로 빛어낸 이야기가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흥의 문화적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국민 내로남 다를 일거사

보다나온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